

손누비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Research on Sonnubee

-Focusing on Korea and Japan-

조한열(텍스타일디자인과)

Han-Yol Cho(Dept. of Textile Design)

Key Words : Sonnubee/Quilt(손누비/퀼트)

ABSTRACT : Today the kinds and patterns of quilts are universally Western one. It is known because quilt is originated in western countries in the city named "Quilt".

But traditionally, it is well known the fact that western and eastern type were existed.

Traditional quilt in Korea is called "Sonnubee". In Japan, it is called "Sasiko".

This paper try to compare Korea "Sonnubee" with Japan "Sasiko" in historical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this study examined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1. 서론

1.1 문제 제기

손누비에는 수세기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단출하면서도 은은한 감을 느끼게 하는 전통 손누비와 개개인의 독창적인 개성과 디자인 개발에 의해 제작되어지는 현대 손누비가 있으며, 이것으로부터는 화려하면서도 그윽한 감을 느끼게 된다.

누비는 인간의 인체 보온을 위해 사용함은 물론 직물 즉 섬유산업발전과 더불어 복식에서 침장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용품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이용되어왔다.

이것은 즉 생활용품이면서도 공예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손에 의해 정념으로 제작되어져온 유일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헌에 의하면, 이미 부족국가 시대에 누비의 원초적인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그후 조선조에는 의복을 비롯 생활용품에 있어 실용성과 장식적인 측면에까지도 계승 발전되어 우리 나라 섬유공예의 터전을 이루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누비는 부녀자들간에 직분에 관계없이 정념을 가지고 인내하며 만들어지고, 여인들의 인생역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 즉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전이되었으리라는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수세기전의 손누비 공예품들을 살펴보면, 평범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의 용구로써 실용적인 면이 증시되어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실용적인 기능면에서나 예술적 감각이 맘껏 부여된 작품 세계의 한 분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단아한 전통적 기법을 고수하는 분야와, 다채로우면서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지는 현대누비, 이는 모두 손누비라는 점에서 일단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리고 솜을 넣어 누빔으로서 보온성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타의 방한용 의류에 비교하여, 무게가 가볍고 세탁이 편리하며 질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손누비는 섬유예술은 물론 섬유산업발전에 있어서도 그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널리 주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은 손누비의 기능적 예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전통누비는 그 이론적 배경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현대누비에 있어서도 그 기능성 및 예술적인 면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론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손누비영역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일본 손누비와 비교를 통하여, 손누비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손누비와 비교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손누비의 성격 내지는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그 성격상 손누비 작품과 문헌중심으로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나, 단지 손누비의 작품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부족과 문헌의 부족으로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손누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리고 손누비를 시기적으로 구분할 만큼 아직 누비 유물에 대한 발굴 및 그에 따른 연구 또한 극히 저조하거나 부족하므로 단지 현대에 제작된 것 이외의 누비를 총칭하여 전통적 것으로 하였음을 전제로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누비공예품에 관한 것이므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과 전문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자료제공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분량의 한계로 인해 꼭필요한 부분만 게재토록한다. 그리고 누비작품에 대한 연구실적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필자개인 능력의 한계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한다.

2. 손누비의 개념

2.1 한국의 史的 개념

문헌에 의하면 누비는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바, 중국을 비롯한 중동지방, 인도, 러시아, 한국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누비는 인간생활과 깊이 관련되어져왔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누비는 주로 겨울철 의복에 사용되었으며, 군복과 투구에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입은 옷은 사람과 친숙해지며 몸과 일체가 된다고 생각했으며, 옛부터

오랜동안 입던 옷을 버리지 않았고, 입던 옷이 헤지고나면 그 옷의 중요한 부분을 떼어 새 옷에 붙이는 것이 생활화되어 왔다.

중국에 이웃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에서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누비는 부족국가 동예의 여인들이 입었던 존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존의는 비단으로 만들어 입었다고는 하나, 누비형태가 어떠한가 등에 대한 기록은 없다. 동예는 그후 고구려에 통합되면서 그 문화를 비롯하여 누비의 전통이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우리 선조들은 추운 겨울에 보온을 위한 의복과 침구류에 주로 누비가 이용되어져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누비가 일상생활에 도입된 시기는 꽤 오래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나타난 최초의 누비옷은 고려 고분 龜神塚(감신총: 평남 온천군 신녕리 소재)의 벽화에서 발견된 것이며, 무사가 입은 누비갑옷에는 사선과 횡선으로 누벼진 것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충담사가 납의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승복이 신라 고려의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계림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납의 입기를 즐기는데 이것은 처음 승가에서 나온 것이다'라 하여 고려인들이 입었던 납의는 승가의 기운 형태가 아닌 누빈 형태의 것으로 추측된다¹⁾.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누비옷으로는 1965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영리에서 출토된 안동 김씨의 수의이다²⁾.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의 유물에서 누비옷을 볼 수가 있으며, 조선조 이전의 누비제품은 발견된 것이 없어 그 기법이나 형태가 어떠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 나라(奈良)시대³⁾의 정교한 누비옷 유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앞서 꽤 오래 전부터 누비를 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시대를 거쳐 진승 발전되면서 복식은 물론 실용적 장식기능을 가진 생활품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본다.

누비는 직물로서 부식되기 쉬우므로 사적 계승과정은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기록의 부재와 보존의 어려움 때문에 역사적인 유물로 관리하기에는 꽤 까다로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의 기록을 토대로하여 상대(上代)사회 고려사회, 조선사회로 구분지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2.1.1 상대사회

1)박성실 “누비소고”, 「복식」 제14호 (서울: 한국복식학회, 1990) 42면

2)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203면

3)나라(奈良)시대: 700~770년

4)동아백과사전』 동아출판사 626면

5)손누비의 경우, 그 명확한 시기구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두드러진 예를 든다면, 누비 자체가 어디까지나 천으로 국한된 것으로 보존이 어려워 유물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정도에 비해 전해오는 것이 극히 적기 때문에 유물을 통하여 시대적 구분을 소상히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대적 구분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손누비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하는데 있다.

고구려 고분 감신총벽화에서 발견된 무사가 입은 누비갑옷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사선과 횡선으로 누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누비가 생활에 도입된 시기는 꽤 오래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부족국가 동예의 여인들은 바지를 입지 않았고 비단에 숨을 놓아 누빈 존의를 입었으며, 그 모양은 담유(楡)와 비슷한 것이었다고 하였다6).

그러나 이 존의는 비단으로 만들어 입었다고는 하나, 누비형태가 어떠했는가 등에 대한 기록은 없다.

반면에 삼국유사에 충담사가 남의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승복이 신라, 고려의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위서(魏書)에서 고구려인의 의관 중에 마의(麻衣) 남의(衲衣) 수조의(手藻衣)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7).

2.1.2 고려사회

고려는 복식사적 면에서 암흑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헌 등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나, '고려도경'에 승복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국사(國師)는 반가사를 입었고 사미비구(沙彌比丘)는 남의를 입었으며 비구는 토황색 포의(布衣)나 자의(紫衣) 또는 남의를 입었고 고려승은 이 남의를 가장 중히 여겼다고 한다8).

또한 고려시대 계림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입기를 즐기는데 이것은 처음 승가에서 나온 것이다'라하여 고려인들이 입었던 남의는 승가의 기운 형태가 아닌 누빈 형태의 것이라고 추측된다9).

2.1.3 조선사회

조선시대의 누비는 대부분이 중기 이후의 것이나 그 숨씨의 세련됨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 부녀자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치마, 저고리, 버선, 찜지, 조각보 등의 갖가지 누비용품들은 여성의 일념과 정성으로 제작되어 그 시대의 부녀자들의 생활과 인품을 나타내주며, 조형품으로써 전통누비의 특성을 형성, 계승 발전하게 된다.

조선왕조 후기의 궁중 발기류(撥記類)에서 보면 왕실 제품들의 단아하면서도 바느질 숨씨가 세련되고, 공예품의 격조 높음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서 생필품으로 개인의 예술적 감각을 충분히 발휘하였음을 디자인의 자유로움에서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남의 입기를 즐긴다라고 '지봉유설권 19 복용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시대에는 한국 복식의 기본구조인 두의, 포, 상의, 대(帶), 하의, 버선, 신 등에서 연령별, 성별, 계급별로 구분없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10).

이 시기에는 천이 귀했으므로 의복 등을 해 입고 남는 조각들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공예품도 만들어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2.2 일본의 史的개념

6)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81) 35면

7)김용숙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상고 고려편』 (서울: 민족문화사 1985) 38면

8)유희경 상계서 151면

9)박성실 "누비소고" 『복식』 제14호 (서울: 한국복식학회) 42면

10)최인건 "손누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8 11면

일본의 누비는, 일본문화가 전래의 풍토가 지니고 있는 것 외에도 동아시아, 연아프리지방, 연해주지방, 중국동북부, 조선반도북부등으로부터 들어와 형성되었다는 일본문화의 특성이운데서 이루어졌다. 즉 어떤 것은 순수한 형태로 또는 복합·융합된 형태로 또 다른 것은 완전히 변화되어 매우 소박한 형태로 흡과 더불어 자연에서 생활하는 소박한 문화속에 잔존·전승되어져왔으며, 일본의 누비 역시 이와같은 사적전통 가운데 생성 발전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누비옷의 근원지는 동북지방으로, 동북지방의 긴 역사속에서 형성된 정신적 문화의 소산이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자연에 근본을 둔 공통된 의식으로 모든 일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지방에는 그와 같은 정신적 풍토가 전승되어왔다고하며, 미찌노구(陸奥)의 누비 역시 그와같은 풍토에 밀착되어 생겨난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외에도 아끼타(秋田), 이와테(岩手), 아오모리(靑森)등지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누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누비옷으로는 正倉院의 刺衾袈裟나 巢掃衣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소의란 지금의 누비옷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일본누비의 전통적 특성은 크게 죠편(繩文)전기¹¹⁾와 중기 그리고 에도(江戸)말기¹²⁾로 나누어 대별할 수 있다. 죠편전기와 중기의 누비는 충전법(充填法)에서 잘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힘찬 조형과 누비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화려하면서도 충동감있는 조형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에도말기의 누비는 면을 이용한 빈민층의 의복과, 부유층의 명주를 이용한 누비옷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 누비가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에도(江戸)시대 이후부터 세계 2차대전에 이르기까지인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누비에 대한 사적 연구가 한국과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³⁾.

2.3 실용적 개념

누비의 실용적 개념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연 의복류를 들 수 있겠다. 누비는 의복을 중심으로 한 치마, 저고리, 바지, 속바지, 수의, 이에 따르는 누비허리띠, 누비 토수(土手), 타래버선, 아얌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존하는 누비저고리와 바지는 1560년대의 것으로 보이는 남양 홍씨의 수의가 대표적이다.

1965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영리에서 제2대 정종의 부마 박인의 5대 손부 안동 김씨의 수의로서 치마, 삼회장저고리에 수직으로 중누비하였고 깃과 끝동에 넓게 색깔 틀린 천을 이어 누볐다¹⁴⁾.

여기서 타래버선이란, 뚝전에서부터 2~3세까지 신는 버선으로 솜을 두어 수를 놓고 누빈 것으로 흰색 무명류이다.

수눅앞 불에 모란, 국화, 매화 등의 동양자수로 장식했으며 수눅에 남자아이는 남색, 여자아이는 빨강 비단 대님을 붙여¹⁵⁾ 그것을 발목에 매어 벗겨지는 것을 방지했다.

누비허리띠는 방향은 물론 장식적이면서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 목적도 있었으며, 누

11)기원전 5000년~ 300년

12)1603년~1867년

13)조한열 『퀼트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1996) 15면 이하참조

14)유희경 전계서 487면

15)전분옥 한국생활』 (서울: 수학사 1975) 135~136면

비토수 또한 한겨울 방한용으로 사용되었다.

옛 우리의 부녀자들은 최소한 일생에 두벌의 누비바지를 짓는 것이 풍속화되어있었다. 우선은 출가지 시어머니의 누비바지 한 벌을 지어야 했고, 시어머니의 환갑 때 또 한벌 짓는 것이 부도였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누비바지를 짓는 것은 시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담겨있었다고 하며, 누비는 땀의 길이를 촘촘하게 누빌수록 실이 길게되고 길수록 정성이 많이 간 옷으로 간주하며, 실이 길수록 장수한다고 믿었다.

2.4 생활용품류

조선왕조 후기의 궁중 발기류(撥記類)에 의하면, 누비 이불이 가장 많았으며 누비보자기 또한 많은 숫자였고 누비보에는 거의가 평행직선형 약 5mm~1cm 정도의 잔누비였으며 조선조 후기에는 대각선 형태의 누비도 있었다.

누비베갯모는 대부분 기하학적 문양으로 누웠으며, 원형 베갯모에 ×구획하여 ×선과 평행하게 누웠거나, ×선 중심에서 밖으로 향한 方形(방형)으로 누빈 것 등이 있으며, 문양으로는 회자문(回子紋), 와문, 뇌문(雷紋), 발형십자문(方形十字紋), 태극문(太極紋) 등이 있다¹⁶⁾.

생활용품류에 있어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누비덧개: 패물상자를 덮는데 사용했으며 적·황의 비단을 마주잇고 가장자리에 녹색의 테를 둘렀으며, 누비와 자수의 혼용으로 조형효과 또한 높다.

(2)누비쌈지: 흰색 무명에 청, 홍, 백 3색실을 사용하여 누빈다.

(3)휴대용 누비베개: 펴고 접을 수 있게 만든 베개로서, 머리를 대는 부분을 누웠으며 튼튼하게 누빈 실용성과 누비줄이 길은데 비교하여 장수염원 또한 서려있다.

(4)방장: 방한 목적의 방장은 전통적 누비와는 달리 대각선으로 누웠으며 네 귀퉁이엔 문양을 오려 아플리케 장식을 하고 다른 색으로 테두리를 한 후 상침하였다.

(5)누비 밥상보: 겉면에는 청색무명을 뒷면에 홍색무명에 기름종이를 덧대어 습기를 방지하고, 촘촘한 줄누비로 누비고 한가운데 꽃모양을 수놓았으며 이는 줄누비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3. 전통 손누비

3.1 한국의 손누비

3.1.1 손누비의 종류 및 특성

(1)오목누비: 주로 두터운 솜옷이나 이불 등에 쓰였는데 누비골이 넓고 깊게 즉 오목하게 되어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라 하겠다. 누비폭이 1cm~1.2cm이며 두터운 솜옷 또는 이불 등에 주로 사용.

(2)중누비: 오목누비 다음으로 누비골이 깊은 상태의 것을 말하며 누비폭이 1cm~8cm정도이며 의복류 또는 이불에 주로 사용.

(3)잔누비: 중누비보다 얇고 폭과 깊이가 좁으며 꼼꼼하게 누빈 상태를 말한다. 누비 폭이 0.1cm~0.9cm로 상류계급의 저고리 혹은 속바지 누비보 허리띠 등의 생활공예품 또는 궁중이

16)김성희 “조선조 후기 조각보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18면

불등에 주로 사용.

(4)줄누비: 줄이지게 누빈상태의 것을 말한다.

(5)납작누비: 숨을 두지 않고 안감과 겉감만을 누비거나, 아주 얇게 숨을 두고, 누비뒷쪽에 풀칠을 하여 밀대나 가는 인두로 다려서 누비표면과 같이 흡이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누비폭이 1cm~3cm이며 주로 의복류에 사용.

(6)상침누비: 실을 3뿔~5뿔씩 홀수로 연속하여 누비는 것을 말한다.

(7)색누비: 여러 가지 다른 색의 실을 섞어서 누빈 것을 말하며 보통 흰색, 노랑, 파랑, 빨강, 초록 등의 5색상을 잘 배합하여 回紋(회문), 떡살문양, 십자방형의 형태를 나타내어 바느질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싹지 또는 누비베갯모 등이 이에 속한다.

3.1.2 손누비의 변천과정

3.1.2.1 전통 손누비

우리나라 손누비는 역사적으로 동예-삼한-고구려-백제-신라-고려왕조사회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문헌에 의하면 최초의 손누비는 부족국가 동예에서 제일먼저 존의를 볼 수 있는데 여자는 바지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비단에 숨을 두어 누빈 존의를 입었는데 그 모양이 담유와 비슷한 것이었으며 바지는 입지 않았다 하였으나, 이 존의는 사전에서 보는바 잠방이(小衣)류와는 달리 긴 것이었다¹⁷⁾.

상한시대에 와서는 絹, 麻, 綿 직물에서 모직물까지 생산되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부터 몽고 복속기까지는 거의 공백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1956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제31대 공민왕 왕릉의 발견에 의한 발굴품은 누비사연구에 있어 큰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는 고려말기의 벽화가 남아 있었고 벽화의 주인공들은 몽고의 복식을 하고 있어 당시 유행했던 몽고 복식의 일단을 알수 있는 것이었다¹⁸⁾.

상고시대의 복식에 있어서는 고분벽화나 조각 등에서 시각적으로나마 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는 유물적 자료마저 결핍되어 그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조선왕조 초기의 것으로 제2대 정종의 부마 박인의 5대손부 안동 김씨의 수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특징 및 용도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누비옷: 천과 천 사이에 숨놓아 누빈 것으로 누비가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며 이조 초기의 손비옷이다.

(2)성종16년(1485) 金冠朝服制定: 당시 사용했던 纁裳 象牙笏

(3)남양 홍씨의 수의: 1400~1450년의 것으로 1980년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에서 홍씨 제 13세예사공파 10세손 현강 계강내외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수의내용은 관복, 천릭, 직령포, 누비포, 버선 습신 등 30여점이 있다.

(4)천릭(天翼): 15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중기 순천 김씨(1530년 임진왜란 이전) 묘에서 출토된 천릭이며 겉감은 짙은 색 명주 안감은 소색명주이며 숨을 두어 5cm간격으로 주볏다. 소매는 두리소매로 변해가는 과정을 조선중기의 천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충북대학

17)三國志 魏書. 東夷傳濊, 後漢書 東夷傳 濊書.

18)'북한의유적발굴' (서울신문, 1972, 7. 17일자)

교박물관소장)

(5)장의(長衣)¹⁹⁾: 1500~16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장의는 안동 김씨 김침(1541~1548)과 김침의 딸(1579~1648)의 묘에서 출토되었으며 걸감과 안감은 명주이고 솜을 두어 1.5cm간격으로 곱게 누볐다.(충북대학교박물관소장)

(6)안동 김씨 수의: 1550~16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1968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쌍에서 출토되었고 유골은 조선조 제2대 정종의 부마 박인의 5대손 박운정과 혼인한 안동 김씨이다. 수의 내용은 치마 삼회정저고리, 바지, 버선, 습진 등 의류는 7점인데 모두 명주에 솜놓아 누빈옷이다.

(7)저고리(襦:유): 1500년대 말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저고리는 것의 폭이 넓으며 깃부분만을 7줄로 누빈 부분누비저고리라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민속박물관소장)

(8)액주음직령포(腋注音直領袍)²⁰⁾: 1529~1604의 것이며, 이 유물은 조선 중기의 동래정씨 휴복의 분묘에서 출토되었으며 무명에 솜을 두어 누빈 것이다.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9)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1635년경의 옷으로 광해군비의 저고리(紅色衫兒)가 있다

(10)그 다음으로는 1680년경의 李端夏부인의 누비저고리가 있다.

(11)배자(褙子): 1647~1702년의 것으로 홍진종의 묘에서 출토된 배자(褙子)이다. 앞이 뒤가 짧으며 걸감과 안감이 모두 명주이고 1cm간격으로 누볐다.(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12)중치막(中致莫)²¹⁾: 1647~1702의 것으로 걸감은 명주이고 솜을 두어 누볐으며 조선 중기 홍진종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고려 대학교 박물관 소장)

(13)전주 이씨 탐능군(耽陵君)의 수의로 1636~1731의 것인데 탐능군의 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수의의 내용은 관복 흉배 천릭, 누비중치막, 상의 중단, 탐누 도포 저고리, 적삼, 누비배자, 바지 각대, 요대, 사모, 두발 등 65점이나 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궁복, 천릭, 창 의, 누비배자 등을 들 수 있겠다.

(14)壬子년(1732)에 별세한 현부인 완산 최씨 저고리가 3개 있다. 이들 중 하나는 거들지²²⁾를 대었는데 양반집 부인이 아니면 거들지를 달아입지 못 하였으며 이것은 예복용이었다고 생각된다.(이화여대박의류직물학과소장)

(15)두루마기(周衣)²³⁾: 1667~1786의 것으로, 조선중기 홍우협의 묘에서 출토된 명주에 누빈 누비두루마기이다.(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16)저고리(襦:유): 1700년대 말 조선 중기 것으로, 명주 겹저고리로 솜을 두지않고 제감으로 누볐으며 조선 중기 은진 송씨부인의 저고리이다.(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17)반비누비(半褙:반배): 1700년대 말 조선 중기 것으로, 은진 송씨의 것이며 깃이 없고 목둘레가 U자형이며 소매가 4cm~5cm 길이이고, 섶은 여미지 않고 맞닿는 부분에서 작은 고

19)곶은 깃에 사방이 막혀있는 두루마기 형태이며, 장의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남자들의 포였으나, 중기에는 남녀구별없이 입었고, 후기에는 여자들의 쓰개인 장옷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20)조선시대 남자포의 일종으로 옷의 형태는 두루마기와 같으나 겨드랑이 아래 무에 주름이 잡혀 있어서 액주음포라고 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21)조선 시대 남자포의 일종으로 옷의 형태는 소장의와 같으며 소매가 넓고 사대부들의 관복의 밑받침 옷이나 간단한 외출복으로도 사용되었다.

22)거들지란 삼회장 저고리의 부리에 단 것으로 백색감에다가 창호지를 밑바쳐서 덧대어 놓은 것

23)사방이 두루막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국시대 고유포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포이며,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녀 모두 입었으며 이 두루마기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다.

롬으로 매었으며 제감에 솜을 두지 않고 2cm간격으로 곱게 누볐다.(국립 민속박물관)

(18)홍제유(洪濟猷)의 수의: 1782년의 것으로, 이 수의는 흰 명주 안팎에 솜을 두어 누빈
으로 모양은 직령에 소매가 좁고 길며 무와 섶이 넓은 소창의(小擘衣)이다.

(19) 조선 후기의 것으로는 사도세자와 혜빈 홍씨의 딸인 청형군주(1754~1821망)의 수의
원삼(圓衫), 당의(唐衣), 저고리, 대란(大欄) 등이 있다.(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20)1837년의 것으로 덕온(德溫)공주누비삼회저고리가 있다. 조선조23대 순조의 셋째 딸인
덕온공주가 출가시 가져간 옷으로 노랑색 비단에 자주색 회장과 흰 안을 넣고 솜을 두어 잘게
누볐으며 흰 동정에 자주색 고름이 달려있다.

(21)노리개보: 덕온공주 유물로서 靑色雲紋緞 겹보에 홍색 끈을 단 것. 靑色緞 겹보자기에 홍
색 끈을 단 것. 연두색 모초겹보자기에 홍색 끈을 단 것 등이 있다.

(22)어린이용 두렁치마: 1880년의 것으로,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기에게 보온을 위하여
입히며 겹 혹은 솜을 두어 누볐고 '두렁치마' '두렁이'라고도 한다. 이 두렁치마는 강화 지방의
것이며 짙은 감색 무명에 솜을 두고 길이 40cm 폭 148cm로 누빈 것이다.

(23)고종(1864~1907)의 누비저고리: 고종이 착용하였던 누비저고리로서 자색 비단에 흰 안
넣고 솜을 놓아 2mm 간격으로 정교하게 누벼져 있다. 이것은 고종의 질녀인 안동 김씨 김인규
부인이 입궐하였을 때 받아 온 것이다.

(24)누비삼회장저고리: 이조 고종 때 판서를 지낸 이용구씨 딸 윤백영 여사가 출가시 자장
(自藏)²⁴으로 만든 옷이다. 玉色雪寒沙에 잔주누비로 되어있다.

(25)납의(衲衣): 1900년대의 것으로 납의는 꿰치면 깎고 또 기워 수백 조각으로 기워 이를
누더기 옷이라고도 하였으며 승일수룩 이런 옷을 많이 입었다. 이는 먹물을 들인 것으로 저고
리의 길이를 무릎까지 길게 한듯한 형태이다.

(26)수보(繡褌): 1913년의 것으로 이것은 손수 수를 놓아 보자기를 만들어 편지를 싸서 왕
하던 것으로 1913년 이종숙씨가 안동 김씨 택으로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이 보자기는 흰 옥양
목에 계수화를 수놓았다.

(27)이조 후기의 누비토수: 이 토수(吐手)는 겨울에 방한용으로 솜토수, 누비토수 등을 착
용했으며 봄가을에는 겹토수, 여름에는 모시, 향나. 홀토수 또는 등(藤)토수²⁵를 켜다. 여자들
의 방한용으로 이용되었으며, 때로는 사치용품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27)버선본집(襪本袋)²⁶: 조선 후기의 것으로 각 식구마다의 버선본을 보관하여 버선을 만
들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어 사용했다.(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28)나염보(捺染褌): 대체로 조선 후기의 것으로 宮中에서 음식물을 덮고 싸는 보자기이다
겉은 색명주이고 속에는 油紙를 대어 얼룩을 막는 겹보, 솜보, 누비보, 홀보 등 여러 가지 종
류가 있다.

홀보 중에는 무명에 五色으로 날염한 화려한 보자기도 있다. 대 중 소 여러모양의 맛보는 궁
중 식생활에 있어 음식물의 운반과 덮는 역할을 하였다.

(29) 오방낭자주머니(五方囊): 조선 후기의 것으로 오방색으로 귀주머니를 만들고 수를 놓은
것으로 궁중유물이다.(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30)쌈지²⁷, 안경집²⁸: 양쪽 모두 천에다 누볐으며 누벼가는 바느질의 그 상태와 색깔을

24)자장: 개인이 간직하기 위하여 만든 옷 등으로 추정됨

25)등토수: 등나무로 만든토수를 말함

26)버선을 만들기 위한 버선본을 넣어두던 보자기로서 펼치면 사각형의 모양이 된다.

27)쌈지란 앞담배를 넣어 두었던 주머니를 말함

28)안경을 넣어두기위하여 만든 것으로 재료로는 천에다 수를 놓은 것과 나무로 담은 것, 물고

그대로 살려서 무늬를 만들었다.

(31)수저집²⁹⁾: 수저집도 조선 후기의 것으로 붉은 색 비단 종류에 십장생 무늬를 화려하게 수놓았다(국립 민속박물관)

(32)조각보, 상보: 수저집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것으로 당시는 옷장이 귀했기 때문에, 옷을 만들다 남은 무명이나 삼베조각으로 흙질, 박음질, 감침질 등을 하여 손누비 하였다.

(33)방장: 조선 후기의 것으로 겨울에는 방한을 목적으로 방안에 쳐 놓던 것이다. 대각선으로 누벼져 있고 네귀통이에 문양을 오려 아플리케장식³⁰⁾을 하고 색다른 천으로 테를 두른 후 상침 하였다.

(34)밤상보: 조선 후기의 것으로 누비보에 사용된 누비는 5mm~1cm정도의 잔누비가 대부분이며 형태로는 평행직선의 것이 많으며 조선 후기에는 대각선형태의 누비도 볼 수 있다.

(35)당코버선: 타래버선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의 것으로 돌전에서부터 2~3세까지 신는 버선을 말하며 숨을 두고 누벼 만들어 수놓앞불에 모란, 국화, 매화 등의 수를 놓아 장식했으며 흰색 무명을 주로 사용했고 수놓에 남는 남색을 여아는 빨강 색대님을 달아 버선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3.1.2.2 현대 손누비

현대의 손누비는 각종 생활용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복식류로는 꾸준히 누비저고리와 치마, 바지, 두루마기, 누비, 버선, 손가방 등이 있으며 생활공예품으로는 컵받침, 테이블 매트, 테이블보, 냄비받침, 수저싸개, 전화덮개, 레인지덮개, 레인지용 장갑 등이 있다.

그러나 손누비를 이용한 복식류나 공예품류등에 있어서 실용품들은 타의 것에 비해 우선 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으며 특히 생활용품으로서의 다양성·규모성에 있어 크게 뒤진다. 따라서 손누비를 이용한 생활용품은 향후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가운데 전통성 내지는 향토성을 살린 손누비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일본의 손누비

3.2.1 손누비의 종류 및 패턴

(1)青海波

(2)檜垣

기의 꺾질로 만든 것 등 여러 가지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였음

29) 수저를 넣어두기 위한 주머니

30)퀼트의 한 종류 혹은 자수 명칭

(3) 綱代

(4) 綱目

(5) 七寶つなぎ

(6) 千鳥つなぎ

(7) 分銅

(8) 矢羽根

(9) 箱さし

(10) 麻の葉

(11)菱紗綾形

(12)枳刺し

(13)紗綾

(14)龜甲

(15)昆沙門龜甲

(16)鳥だすき

(17)十字花刺し

(18)籠目

3.2.2 손누비의 변천과정

3.2.2.1 전통 손누비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전통 손누비가 궁중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이어져왔던데 비해, 일본의 전통 손누비는 주로 서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다음 표는 일본의 전통 손누비를 지역별, 분류명칭별, 그리고 그 기법 및 문양별, 복식명, 특징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인데 일본 전통 손누비의 역사 내지는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다.

지역명	분류명칭	소장	기법 및 문양	복식명	소재	년도	특징
津輕	こぎん (東こぎん)	青林・稽古館	麻의위사를따라뚝바로꺾매어 간다 豆こ,花こ,てこな(蝶) 猫の足	作業復 着物	麻 綿	1788 1791	*면사는매끄러우 면서도포근하다 *작업복으로사용 했다
"	"	東京サント リ-美術館	花こ,やすこ刺し	"	"		
"	"	東京・日本 民藝館	竹の節	"	"		
"	"	東京サント リ-美術館	てこな(紗綾)囲み	着物の앞뒤판	"		
"	"	"	やすこ刺し,糸柱入りの馬の の紗綾(紗綾)囲み	こぎん全肩	"		
"	"	"	田の畔	"	"		
"	"	"	たださし	"	"		2중누비
"	"	"		こぎん着物	"		
"	"	"	互の目刺し	"	"		2중누비
"	こぎん (西こぎん)	青林・稽古館	"	こぎん着物	麻		
"	"	"		"	麻 綿		헤지면2중으로누 벼고쳐때가타면 감색으로물들인 다
"	"	東京サント リ-美術館	止まらず,豆こ,やすこ刺し,馬 の ぎ	"	"		
"	"	青林・稽古館	さかさこぶ	"	"		
"	"	東京サント リ-美術館	止まらず,猫の足,矢の羽	こぎん全肩	"		
"	"	"	やすこ刺し,囲み模様	"	"		
"	こぎん(三縞 こぎん)	青林・稽古館		"	"		
"	"	"	馬の ぎ,胡桃	"	"		
"	"	東京サント リ-美術館	キクラコ,紗綾形,矢の羽	"	"		

"	刺子	青林・稽古館		長着	綿		몸체앞뒤판에감색실위사를따라누빈다
"	"		山道形	コシキリ	"		
"	"		柿の花	袖ナシ	"		
"	"	青林・稽古館		長着	"		
"	"	京都・田村資料館		袖ナシ	"		
"	"	青林・稽古館		袖ナシ	"		직조문양으로꽃문양
"	"	"		長着	"		직조문,등판에잉어문양이있다
下北	刺子	"		ツツレ	"	大正초기	누비옷이일상복이되다
"	"	"		袖ナシ	"		소매가없는것은외출복성격이강하다
南部	菱刺し	"	菱形	前垂れ	"	大正	麻에면사혹은모사로菱形문양으로누빈것
"	"	東京・日本民藝館	菱文様	マカナイ	"		菱은수많은눈이되어그잘린끝으로魔를찌른다 고믿었다 옷을대신한다는의미
"	"	青林・小川原湖民俗博物館	子の足	"	"		
"	"	"		"	"		
"	"			タツツケ	"		상하를맞추어입는다
"	"			マカナイ	"		
"	"	青林・小川原湖民俗博物館		タツツケ	"		
"	"	青林・小川原湖民俗博物館		三幅前垂れ	"		색으로구분하여문양구성
"	"		鱗	前垂れ	"		
"	"			"	"		
"	"			三幅前垂れ	"		
"	"			前垂れ	"		
"	"			"	"		
"	地刺し	青林・稽古館		袖ナシ	"		
"	地刺し	青林・小川原湖民俗博物館		マカナイ	"		ムジリ袖:소매하부를앞쪽으로접어폐멘것

"		岩手縣立博物館		玉山スッパ	木棉・麻		玉山지방의부랑자옷
庄内	刺子	山形・致道博物館	刺し	サシコジバン	"		
"	"	"		サキオリ	"		
"	"			サシコジバン	"		三合 문양:머느리 五合 문양:청년 一升:老狀년 의大小로입는사람의 일의양을표현했다
"	"	山形・致道博物館	山刺し	サシコジバン	"		
"	"	"		"	"		
"	"	福島・會津民俗館		"	"		전체적으로쪽염하여사용하다보면웨맨실의쪽실이먼저퇴색되어무늬가된다
"	"	大坂・國立民族學博物館		纒曳き用袖ナシ	"		
"	"			荷ズリ	"		물건을등에질때입는다
"	"	東京・日本民藝館		サシコジバン	"		
"	"	山形・致道博物館	ガンゼ刺し	ドンザ	"		
"	"			サシコジバン	"		
會津	"	福島・會津民俗館		裃纏	會津木棉		
"	"	"		"	"		
"	"			"	"		칼라의안쪽에글귀가새겨져있다
"	"	福島・會津民俗館		モッコサシコ	"		新潟縣上川村의刺子
"	"	"		サレツパカマ			
佐渡	"	新潟・佐渡國小木民俗博物館		船祝いゾンザ(トンザ)	綿		어촌에서새로만든배를축하할때에입었다
"	"	"		三幅前垂れ	"		뱃사람들이배에서취사할때입었다

能登	"	石川縣立歷史博物館		サシコ	"	누비실의굴린각진방향 이등의한곳으로집중하 고있다
"	"	"		"	"	해녀가입는 것
三國	"	京都・田村資料館		サシコサッ クリ	"	등의아름다운모양의누 비가특징적이다 난파선구조시에도착용 했다
"	"	"		"	"	
丹後	刺子	京都・府立丹後郷土 資料館		ドンザ	綿	神崎의선원이입던옷
"	"	"		サッコリ	"	여성이입던옷
"	"	"		サシコ	"	축제祥塵,城門혹은천 수각등의풍경이나인물 이앞뒤에누벼져있다
伊勢 志摩	"	三重・海博物館		ドンザ	"	머느리(출가시)코트대 용으로누빈것.문양이1 3종류나된다
"	"	"		サッケ	"	神島の해녀방한복, 출 가시에는필히지참했다
"	"	"		ショイバン コ	"	
四國	"	徳島・由岐町教育委 員會	菱形文様	ドンザ	"	
"	"	"	花菱	"	"	마늘땀의길과짧음에따 라花菱은단순한형태이 면서도생동감있게누벼 져있다
博田	"	福岡市博物館		ドンザ	"	누비실을어망포개진것 처럼겹쳐서페매고각각 의겹친곳은뭉는다
"	"	"		"	"	
"	"	"	麻の葉文様	"	"	여덟잎의麻잎문양은외 부로부터魔의접근을막 는다는의미
"	"	"	タコノマク ラ文様	"	"	惠比壽는다른곳에서부 를가져오는풍어의신이 라고믿고있다

	刺し子	東京・武蔵野美術大學美術資料圖書館	菊花	風呂敷	"		
	"	"		"	"		
	"			"	"		
	"	東京・國際基督教大學博物館 湯淺八郎記念館		"	"		
	刺し子	福島・會津民俗館		脚絆アクト ガケ	"		
	"	"		足袋	"		
	"	青林・稽古館		手甲,アクト ガケ,足袋	"		
	"	福島・會津民俗館		甲掛け,草鞋 掛け	"		
	"			前垂れ	"		
	"	京都・田村資料館		刺し子供着			용과호랑이를그리고검은목면실로누빈 것이다 아기가튼튼하고건강하게성장하기를기원하는뜻이담겨있다

상기 표를 근거로 하면 일본 전통 손누비를 분류명칭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의 한국의 손누비의 종류에 비하면 수적으로는 훨씬 적은 것으로, 일본에서의 손누비가 역사적으로 서민 중심으로 계승 발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법 및 문양면에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수적으로 많아 종류는 적지만 기법 및 문양에서는 한국보다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형태 문양 및 기법은 직업 즉 농민 어민 또는 해녀 등 직업과 축제 등 용도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했다. 그리고 아기복의 경우 주술적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이는 일본에 있어서의 손누비가 서민의 정서와 깊은 관계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음을 의미한다³¹⁾.

3.2.2.2 현대 손누비

일본 손누비는 현대에 와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아래에 정리한 표를 통하여, 최근 일본의 손누비는 가정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개발·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31)京都의 田村資料館에 보관되어 있는 刺し子供着이 아기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분류 종류	생활공예품	복식류	침장류
1	핸드백	자켓	침대커버
2	보조가방	브라우저	소파커버
3	소품주머니	베스트	무릎덮개
4	신발주머니	스커트	러그
5	휴대용슬리퍼	원피스	쿠션
6	테이블크로스	모자	방석커버
7	테이블러너	파티용장갑	파티션
8	테이블매트	웨딩드레스	커튼
9	냅프킨	칼라	
10	겹받침	카푸스	
11	냅비용장갑	벨트	
12	각종받침류		
13	바구니		
14	휴지커버		
15	벽걸이용포켓		
16	피아노커버		
17	타피스트리		
18	크리스마스용품		
19	누비공예장갑		
20	방비커버		
21	보자기		
22	반전고리		
23	바늘꽂이		
24	책커버		

일본의 경우는 최근 현대적인 것보다는 자기 나라의 전통을 살린 실용성 있는 생활용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손누비에 관한 전문서적 내지는 잡지 등이 다양하게 출판되어 손누비의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³²⁾.

그러한 일본에 비해 한국의 손누비는 일본 이상의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등한시함으로써 일본에 비해 손누비의 생활화 내지는 상품화가 크게 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는 그 숫자가 극히 제한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손누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생활용품의 수준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손누비의 인구의 저변확대와 손누비 인식확대 및 학문적 예술적 발전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방안이 요구된다.

4. 결론

32) 손누비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 서적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서: 横島直道 『津輕こぎん』日本放送出版協會, 田中忠三郎 『南部つづれ菱刺し模様集』北の街社, 八田愛子・鈴木克子 『菱刺しの技法』美術出版社

잡지: ONDORI “刺し子の本” 雄鶏社

한국과 일본의 손누비에 대하여 비교·고찰해본 결과 한국의 경우는 궁중 혹은 양반가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굵게 누빈 잔누비류의 직선누비를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천의 종류 및 색깔의 다양함이 특징이며 단순한 줄누비를 촘촘히 혹은 성결게, 천의 두께를 얇게 혹은 두껍게 함으로서 변화를 주었으며 조선 중기부터는 색실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사선누비도 사용되었고 실제로 손공이 많이 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바늘땀이 작고 고을수록 혹은 실의 길이가 길수록 정성은 물론 온정과 염원이 깃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혹은 실의 길이가 길수록 장수한다는 의미도 부여됐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추운 지방에서 방한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천을 싼값에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서민용 작업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 일본 손누비의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누비를 표현하는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종류로는 직선 및 사선누비가 자연스럽게 배합되며 다양한 누비 패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예술적으로는 다양한 패턴에서 이어지는 미적 감각 또한 우리의 손누비와의 색다름을 느낄 수 있다.

실의 종류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단색을 주로 사용했으나 한국의 경우는 감색, 흰색, 적색 등을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손누비의 특성이 한국의 경우는 장엄함과 멋 그리고 실용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 했으며 때로는 잡귀를 쫓아내고 부를 가져다 온다는 등의 염원을 기리는 뜻의 문양을 세겨넣어 손누비의 상징적 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바느질 방법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 모두 누비 즉 홈질이 대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박음질과 반박음질도 사용되었다. 누비에 있어서 공예적 요소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색누비와 상칭누비라고 생각되며 일본의 경우는 다양한 패턴에서 화려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사적 차원에서는 한국 누비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일본보다 예술적인 면은 물론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누비의 기술성에 관한 한 일본에 비해 예술성·기술성·창의성 등에 있어 크게 뒤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한국 손누비가 귀족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애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어서는 일본에 비해 전체적인 면에 있어 크게 뒤져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손누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하여 지적할 수 있겠다. 즉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누비의 패턴을 이론적과 실질 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김용숙, 1985,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상고 고려편』 (서울: 민족문화사)
- (2) 『동아백과사전』 동아출판사
- (3) 三國志 魏書. 東夷傳 濊, 後漢書 東夷傳 濊書.
- (4) 석주선, 1985, 『의』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5) 석주선, 1985,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제)
- (6)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수학사)
- (7) 전분옥, 1975, 『한국생활』 (서울: 수학사)

(8) 조한열, 1996, 『퀼트의 이론과실제』 (서울: 학문사)

(9)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2천년』

<논문>

(1) 오근미, 1985, “현대퀼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이진애, 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퀼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최인건, 1988, “손누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박성실, “누비소고” 「복식」 제14호, 한국복식학회

(5) 김성희, 1979, “조선조후기 조각보에 대하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외국문헌>

(1) 荻 清子, 1993, 『こぎん・刺子』 (京都書院美術館)

(2) 荻 清子, 1992, 『刺子の本』 (雄鶏社)

(3) 鷺澤玲子, 1996, 『トラプントキルト』 (日本ブオーグ社)

(4) くらだあいこ, 1995, 『野のキルト』 (東京: 文化出版局)

(5) 齊藤禮, 1993, 『刺し子づくし』 (東京: 文化出版局)

그외 다수